



고령화에 따른 손해보험회사 위험요인 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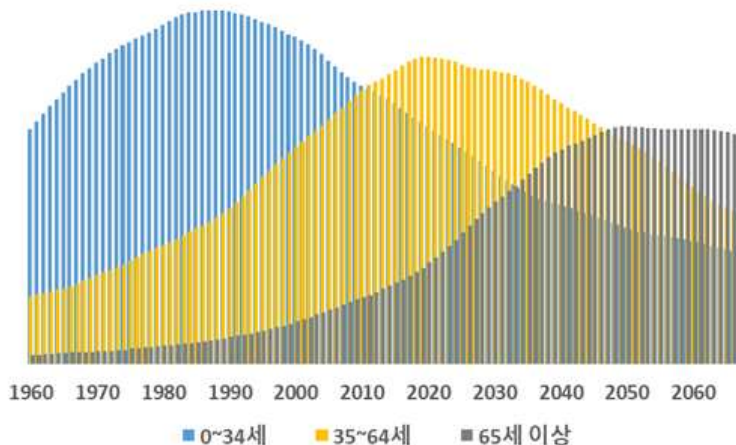
김세중 연구위원, 김유미 연구원

우리나라 손해보험회사는 연금, 건강보험 등 장기보험을 판매하기 때문에 고령화 리스크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으나 전체적 노출 수준이 높지 않은 것으로 보임. 건강보험의 경우 유병력 고령자 가입증가로 인한 고령화 리스크 요인이 존재하며, 갱신 보험료가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리스크도 존재함. 그러나 연금보험은 종신형을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리스크가 미미하고, 자동차보험 및 기업형 일반손해보험은 고령화 리스크를 상당 부분 희석시킬 것으로 보임. 향후에도 손해보험회사는 발생 가능한 고령화 리스크를 분산시킬 수 있도록 상품 포트폴리오 관리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

- 기대수명 증가와 출산율 하락으로 우리나라 인구는 빠르게 고령화 되어가고 있으며, 고령화는 개인의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의 리스크 측면에서 다양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우리나라 인구의 기대수명은 OECD 주요국에 비해 빠르게 증가하면서 OECD 내 최고수준으로 상승한 반면, 출산율은 매우 낮은 수준을 지속하면서 급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음
 - 기대수명의 예상치 못한 증가는 보험회사의 생존 및 건강보장 상품의 부채를 확대하는 리스크 요인이며, 보험계약자 연령의 고령화도 고령화 리스크를 확대시킬 수 있는 요인임
- 우리나라 손해보험회사는 연금, 건강보험 등의 장기보험 비중이 크기 때문에 고령화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으며, 2022년 신지급여력제도인 K-ICS 도입으로 고령화에 따른 위험요인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
 - 해외의 경우 손해보험회사는 연금, 건강보험과 같은 개인보험을 거의 취급하지 않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화와 관련한 개인보험 비중이 높은 상황임
 - 2022년 도입예정인 신지급여력제도 K-ICS는 미래현금흐름에 영향을 주는 위험률에 충격을 가하는 방식으로 보험위험 요구자본을 측정함
 - 이는 과거 보유보험료에 위험계수를 곱하는 방식에 비해 정교화된 방식이므로 고령화와 관련한 요구자본 부담이 커질 수 있음

- 또한 기존 RBC제도에서 반영하지 않았던 장수위험이 새롭게 추가되었으며, 연금보험에 적용되는 장수위험은 기대수명 증가에 따른 고령화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리스크 항목임

〈그림 1〉 우리나라 연령대별(0~34세, 35~64세, 65세 이상) 인구 추이



자료: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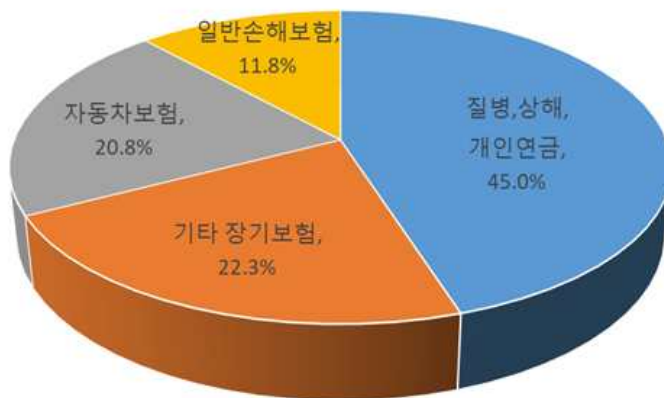
- 건강보험의 경우 유병률이 높은 고령층의 가입자 비중이 높아지면서 고령화 리스크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실손보험의 경우 갱신 보험료가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리스크가 존재함
 - 고령인구 증가로 고령자를 위한 건강보험 상품이 다양하게 출시되면서 유병력 고령 가입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유병력 고령 가입자의 경우 경험 데이터가 많지 않아 보험금 지급 규모에 변동성이 클 수 있음
 - 또한 고연령 사망률이 낮아지면서 고연령 계약자의 유병률이 보험회사가 예측했던 것보다 높아질 수 있는 리스크가 존재함
 - 실손보험의 경우 정액형 건강보험과 달리 실제로 지출된 의료비를 보상하며 갱신행 상품이기 때문에 갱신보험료를 통해 고령화 리스크 관리가 가능함
 - 그러나 실손보험은 전국민 대부분이 가입하여 준공공성을 가진 보험으로 인식되면서 보험료 인상에 제약이 따르므로 고령층에 대한 보험료 조정이 충분치 않을 경우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음
- 기대수명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고령층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연금보험의 리스크가 증가할 수 있으나, 손해보험회사는 종신연금을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장수리스크에 대한 노출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연금보험은 납입한 보험료가 적립되는 적립기와 연금수령이 개시되어 매달 또는 매년 일정금액을 수령하는 지급기로 나눌 수 있는데, 가입자가 종신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예상치 못한 기대수명 증가는 보험회사에 리스크가 될 수 있음
- 그러나 손해보험회사의 경우 종신형 연금 지급이 불가능하고 최대 25년까지 확정형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장수리스크는 거의 존재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한편 손해보험은 자동차보험 및 기업형 일반손해보험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건강보험에서 발생하는 고령화 리스크가 상당 부분 희석될 것으로 보임

- 우리나라의 손해보험회사는 장기보험을 취급하면서 개인보험에 해당하는 질병·상해보험, 세제적격 연금 보험 등을 판매하고 있으나 이는 전체 수입보험료의 45% 정도만을 차지함
- 자동차보험의 경우 최근 인지도가 저하되는 고령층의 자동차 사고가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되면서 고령화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으나, 자동차 보험은 단기계약으로 갱신보험료를 통해 위험을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일반 손해보험을 구성하고 있는 화재보험, 해상보험, 보증보험, 특종보험 등은 대부분 기업성 보험으로 개인의 고령화 문제와는 큰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고령화에 따른 리스크를 분산하는 효과가 있음

〈그림 2〉 손해보험 수입보험료 기준 종목별 비중 (2018년 기준)



주: 기타장기보험에는 운전자보험, 재물보험, 저축성보험 등이 있음
 자료: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 향후에도 손해보험회사는 발생 가능한 고령화 리스크를 경감시킬 수 있도록 상품 포트폴리오 관리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

- 손해보험회사의 요구자본 부담을 살펴보면 장기상품을 판매하는 특성상 금리변화에 따른 부채변동이 가장 큰 리스크 요인이지만, 기대수명 증가와 같은 고령화 관련 리스크 요인도 무시할 수 없음
- 손해보험회사의 고령화 리스크는 건강보험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리스크 대응을 위해 고령화 리스크를 유발하는 장기 건강보험과 고령화 리스크를 상쇄할 수 있는 기타 장기보험, 자동차 보험, 일반손해보험 등의 상품 포트폴리오를 적절히 유지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저연령과 고연령, 표준체와 비표준체 등 건강보험 가입자 구성을 다변화하여 건강보험의 고령화 리스크에 직접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kiri](#)